

(박지원 · 정동영 · 천정배)

통합반대 '박정천', 安 비판 한목소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직을 걸고 통합 찬반 진당원 투표를 제안한 다음날인 21일 당내 대표적 통합 반대파로 일명 '박정천'으로 비유되는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천정배 전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대표는 DJ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주식회사 회장도, 대표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치가) 장사꾼이 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안 대표가 마치 DJ를 이어가는 것 같는데 DJ는 보수야합 합당을 거부했다"며 "통합 상대인 유승민 대표는 이회창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통렬한 반성도 없었다. 이회창 전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 보면 아들 보이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유 대표와 안 대

“보수대야합 합당하고 싶다면 나가서 해야”
“소속의원 의사 무시 밀어붙인 합당史 없어”
“통합 적절치못해... 사실은 분열적인 합당”

표를 비교하면 족달불급이다. 지난 대선 TV토론 안 봤나. (안 대표가) 유 대표한테 질질 끌려 다니잖나"라며 "지금도 통합이니 합당이니 하지만 유 대표에게 바른정당에게 끌려 다니고 압도당하고 정체성도 가지 않고 결국 그쪽 따라가면서 갈 것이다. 이게 뻔히 보이는데 왜 내가, 왜 우리가 (통합에 찬성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 대표가 그렇게 보수대야합 합당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왜 남의 집에서 하려고 하나.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나고 스님이 떠나야지"라며 "DJ도 YS하고 있을 때 싫으니까 나와서 창당했다. 이것이 정치사이고 이것이 인간사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 대표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의원총회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당 반대파에게서 공격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의원총회에 나오지도 않고 도망쳐버리는 '도침수'가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안 대표의 행보를 '골목독재'라고 비유하며 "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신독재 시절에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었다"며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많으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신독재 정당과 수단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화합 퍼포먼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위의 만남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하면 더 멀리 갑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노사정 화합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민주당 추미애·김현, 간섭하려면 입당하라”

“관심 좀 꺼달라”
비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당은 “이 사안에 간섭하고 싶다면 차라리 입당하라”고 반박했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합당 추진 여부는 국민의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에 대해 “국민에 대한 약속도 못 지키는 조합지졸 아니었나 (싫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일시국회를 3일 앞두고 나온 안철수 대표의 무모한 비른정당과의 합당선언으로 국민의당이 아답법사다.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추 대표의 풀이에 대해 평하는 것이

참으로 무망하지만, 관심 좀 꺼달라”며 “여당 대표로서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서고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정도로 간섭하고 싶으면 차라리 입당하라. 진당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나”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만나 악수 하고 있다

임종석, 오늘 복귀...靑 UAE 방문 해명 계속 바뀌며 논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는 22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배경과 청와대 설명에 논란이 지속되고, 아련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어 이슈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임 실장은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 한 뒤 오후에 반차 휴가를 썼으며 21일까지 연차 소진을 겸해 휴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매주 목요일 열리는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는 이날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신 맡는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휴가가 연말 연차 소진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실장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9~12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이유에 대한 정치권 공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언론의 UAE 왕세제가 방문 날짜를 직접 지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 방문 시기는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실장의 UAE 방문 배경을 놓고 청와대의 설명이 조금씩 바뀌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임 실장의 출국 다음날 박수현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이 해외 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UAE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8일 임 실장이 UAE 원전 책임자와 같이 있는 사진이 공개되고,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이 UAE 방문에 동행한 영상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는 “UAE와 우리나라 간 파트너십 강화 현안이 있고 그 중 정보교류 차원이 있기에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임 실장의 UAE 방문 배경을 두고 관련 보도와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지난 20일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UAE와의 관계가 이전 정부에서 소원해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을 통해 들었다. 그 쪽에서 서운하라는 점이 있으면 풀어주고 정보도 교류해야 해서 민난 것”이라고까지 설명했다.
여전히 아련에서는 청와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청와대가 그리 땀땀하고 국익을 위한 활동을 했다면 왜 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안 하고 4일간의 휴가를 갔느냐”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 말이 자주 비껴에 따라 국민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임 실장의 UAE 방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밝혔다. 아울러 양국간 민감한 외교사안과 고위급 대화 내용을 일변에 날같이 일리는 것은 외교적 결례이자 양국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UAE 외교상 비공개를 준수하는 것이 규칙이다. 향후 UAE와 우리나라 정상 외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 실장과 UAE 왕세자 간 면담 결과 내용 전문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는 “전문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외교부가 밝힐 수 없고 임 실장이 직접 밝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